

‘포수 전쟁’ 막 올랐다



KIA 김민식이 정교해진 타격으로 ‘안방마님’으로 자리를 굳혔다. 지난 1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2018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KIA가 삼성에 8-5로 승리한 뒤 김민식이 기뻐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김민식 공격 살아나
확실한 ‘안방마님’ 자리매김
백용환 남고 한승택 말소
김기태 감독 “지켜보겠다”**

KIA 타이거즈 ‘포수 전쟁’의 첫 막이 올랐다. 2018시즌 KBO리그의 키워드 중 하나는 ‘포수’다. 전반적인 포수난 속 시즌 초반부터 포수 고민으로 속앓이를 하는 팀들이 눈에 띈다. KIA도 28일 경기를 앞두고 포수 고민에 빠졌다. 다른 팀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었던 ‘누구를 엔트리에서 말소할까?’ KIA는 개막전 선발이었던 허터를 포함해 25명의 선수를 개막 엔트리에 넣고 시즌을 출발했다. 그리고 25일과 27일 각각 이날 선발이었던 양현종과 팻턴을 엔트리에 등록시키면서 남은 두 자리를 채웠다. 28일에는 4번째 선발로 나서는 이민우가 등록되면서 엔트리 말소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포수 자리에서 첫 말소자가 나왔다. 2명의 선수로 경기를 풀어가던 다른 팀들과 달리 3명의 포수로 3경기를 치른 KIA는 이날 한승택을 제외하면서 이민우의 자리를 마련했다.

김민식이 정교해진 타격으로 확실한 ‘안방마님’으로 자리를 굳힌 가운데 그동안 백용환과 한승택의 소리 없는 전쟁이 전개됐다. 1차 전쟁의 승자는 백용환이 됐다. 김 감독은 이날 한승택의 말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포수 중 한 명이 빠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용환이 자신 있다고 해서 보여주고 했다. 지켜볼 생각이다”면서 “이럴 때 감독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다. (한)승택 선수에게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민식과 백용환 체제로 배터리를 운영하게 됐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 감독은 “먼저 승선해서 가는 게 중요하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자리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개막 엔트리에 이어 잔류는 목표를 이룬 백용환은 ‘최대한 오래’를 이야기했다. 백용환은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수술한 부위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 썼고 몸은 완벽하다”며 “마무리캠프에서부터 송구에 신경을 많이 썼다. 송구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여러 부분에서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나는 뒤에서 경기를 풀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위기 상황,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가게 되는 만큼 무엇보다 수비에 가장 신경 쓰겠다. 최대한 오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백업 경쟁 속 주전 김민식의 성장세는 KIA에 든든한 힘이다. 마무리캠프를 지원해 타격에 공을 들이던 김민식은 2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초반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식은 “공격이 수비에 영향을 미치지만 안 된다. 공격은 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며 “지난해 팀 타격이 워낙 좋았는데 내가 (못해서) 너무 뒤였다.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 감은 좋다. 이대로 시즌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꾸준한 시즌을 목표로 이야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형우 “내가 제일 못 치고 있어” 이범호 “난 한 이닝 두 번 죽었어”

덕아웃 T 특독

▲50경기만 부탁드립니다 = KIA 타자들의 맹타는 타격 코치들을 물론 투수 코치들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다. 서재웅 투수 코치는 28일 “타자들이 잘해주니까 투수들도 편하게 할 수 있다”며 미소를 지었다. KIA는 전날 6개의 홈런포를 앞세워 17-0 대승을 거뒀고 6.1이닝을 던진 팻턴을 필두로 박정수, 임기준, 문경찬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이어서 코치는 훈련을 위해 나온 최형우를 향해 “(이런 경기) 50경기만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최형우는 “40경기는 헤드윙게요”라고 응답했다.

▲내가 제일 못 치고 있어 =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최형우도 쉽게 명함을 내미는 타선이다. 최형우는 28일 경기 전 팀 타선에 대한 질문을 받아 “내가 제일 못 치고 있어요”라며 웃었다. “다들 뭐하면 5할이야”라고 덧붙인 최형우. KIA는 개막 후 3경기에서 42안타 10홈런 35득점의 무시무시한 화력을 뽐냈다. 27일 경기에서는 한 이닝 2홈런의 안치홍을 비롯해 바나나, 최형우, 김민식, 김주환이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기록했다.

▲공이 튕겨 나가는 게 달라요 = 사랑받고 감탄하게 만든 무서운 공세였다. KIA는 kt와의 개막전에 4-5 역전패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개막 첫날부터 12개의 안타를 기록하는 등 막강 화력을 과시하고 있다. 김기태 감독은 “타격 코치들과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다. 공이 튕겨 나가는 게 다르다. 맞는 힘이 잘 전달되고 있다.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나쁠 때는 멀리 보내고 싶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초반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지만 자만은 경계했다. 김 감독은 “안 맞을 때도 있을 것이다. 좋은 경

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경기에서 문제점도 드러날 것이다”고 언급했다.

▲나는 두 번 죽었잖아 = KIA는 2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특별한 홈런쇼를 기록했다. 4회 투런포를 날리며 시즌 1호 홈런을 기록했던 안치홍이 타자일 순에 들어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답장을 넘기며 KBO리그 통산 8번째 ‘한 이닝 2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공세 속 이범호가 덕아웃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 이닝에 홈런 두 개를 쳤다”는 안치홍에게 이범호가 “나는 한 이닝에 두 번 죽었어”라고 말한 것이다. 6번 안치홍에 이어 7번 타자로 나선 이범호는 좌익수 플라이로 4회 첫 아웃을 기록했고, 타자 일순에 들어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범호는 “내가 전 경기에서 불발이었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범호는 25일 kt와의 경기에서 멀티 홈런으로 5타점을 올리며 14-1 승리를 이끌었다.

▲나도 잡을 줄 몰랐어요 = ‘옛 동료’ 백용환을 울상짓게 만든 삼성 강한울의 호수비였다. 27일 경기가 끝난 뒤 백용환은 “내가 (강)한울이한테 잘해줬는데”라며 웃었다. 백용환은 이날 8회 1사 1루에서 대타로 들어가 매서운 타구를 날렸다. 안타성 타구였지만 강한울이 몸을 날려 공을 잡은 뒤 2루로 송구해 더블 아웃을 만들었다. 치열한 자리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백용환에게는 아쉬웠던 순간. 강한울은 28일 “경기가 끝난 뒤 용환이 형에게 문자가 왔다. 사실 나도 잡을 줄 몰랐는데 공 글러브 안 가져져 나가는 게 다르다. 맞는 힘이 잘 전달되고 있다. 컨디션이 좋다. 컨디션이 나쁠 때는 멀리 보내고 싶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초반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지만 자만은 경계했다. 김 감독은 “안 맞을 때도 있을 것이다. 좋은 경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26년까지 부산에 개폐형 돐 구장

2026년까지 부산에 돐 구장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28일 사직야구장 중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개폐형 돐 구장으로 야구장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롯데지아인츠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사직야구장은 1985년 10월 건립돼 33년간 사용하고 있다. 경기장과 관람석을 제외한 공간이 부족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인접부지도 좁아 증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 건축하는 돐 구장 규모는 부산시 인구와 관람객 수, 다른 지역 야구장 규모 등을 고려해 2만8000~3만석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 건립 형태는 개폐형으로, 야구 외에도 콘서트와 각종 이벤트, 컨벤션 등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폐형 돐 구장으로 건립하면 연간 사용일수가 현재 80일 정도에서 200일 이상으로 늘어날다. 용역에서는 돐 구장 건립비로 국비 650억원, 시비 650억원, 민간자본 2200억원 등 3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최대 50년간 위탁 운영한다. /연합뉴스

류현진 ‘마지막 모의고사’ 4.2이닝 3실점

내달 3일 정규리그 첫 선발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다양한 변화구를 점검하며 개막 준비를 완료했다. 류현진은 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adium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선발 등판, 4.2이닝 9피안타 3탈삼진 3실점(2자책)했다. 류현진은 팀이 4-3으로 앞선 5회 초 2사 1·2루에서 교체됐다. 바뀐 투수 조쉬 스포츠가 후속 타자를 버타 처리해 류현진은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는 5회 말 2사 1·2루에서 벌어진 때인 ‘물난리’로 32분간 지연됐다. 다저스의 4-3 콜드게임이 선언됐다. 시범경기 4경기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7.04(15.1이닝 12실점)를 기록한 류현진은 4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정규시즌 첫 선발 등판한다. /연합뉴스

KLPGA 기아차 한국여자오픈 예선전 도입

한국 여자 골프의 최고 권위 대회인 기아차동차 한국여자오픈이 예선전을 도입한다. 대한골프협회(KGA)는 올해 열리는 제 32회 한국여자오픈 출전 선수 10명은 예선전을 통해 뽑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선전은 오는 5월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참가 자격 등 자세한 예선전 요강은 나중에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www.kgagolf.or.kr)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올해 한국여자오픈은 오는 6월14일부터 다음 달인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